

교육협치 활성화 위해 시민목소리 직접 듣는다

‘2019 광주교육 시민토론회’ 오는 28일 개최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라페스타 웨딩홀에서 ‘2019 광주교육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교육, 소통(通)에 답고 협치(路) 걷다’는 주제로 ‘교육협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시민들에게 묻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생각을 듣는 정책토론회다.

‘지치의 시대, 교육 협치의 방향과 시민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민형대 전 광산구청장의 기조 강연

을 시작으로 교육협치, 지역협력, 학교자치 분야 의제들을 놓고 열린 공론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의 교육거버넌스 구축과 교육협치 비전 수립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의 과정으로 시민과 함께 교육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올해 7월에 출범한 제1기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위원들이 토론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여 광주교육의 협치역량을 높여가고 있

다. 토론회 의제는 광주교육시민참여단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제와 시민 공모를 통해 발굴한 의제를 놓고 정책 숙의의 장으로 마련된다.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협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 결과는 이후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11일까지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을 하면 된다.

조인호 기자

광주 금파공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교육부 장관상



광주 금파공업고등학교 전기전자과 3학년 장강성 학생과 심기방 교사가 도제교육 참여 및 운영과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장강성 학생은 5월 2019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워크숍에서 학교와 기업에서 배우는 도제교육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학생 우수수기

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됐고 심기방 교사는 도제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도제학교는 2015년 3월부터 특성화고 9개교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빠르게 확대되어 현재는 6개 사업단, 194개 과정, 162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학생과 기업과 학교를 오가

며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교육 및 훈련을 받는 현장 중심 직업교육 훈련이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도제교육 GO, 미래기술인재 UP’이라는 슬로건으로, 도제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미래인재기술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제학교는 참여 분야가 다양해짐으로써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교육부,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협업을 통해 도제교육에 적합한 우수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도제교육 참여 수기로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한 금파공고 장강성 학생은 “도제교육을 시작으로 선생님과 기업체 현장교사분의 가르침으로 많이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배워 전문기술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인호 기자

장성 삼서초교, 화상수업으로 대만과 문화 교류



장성 삼서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교실 속 스크린을 통해 대만 타이페이에 위치한 Zhiqing 초등학교 학생들과 화상으로 대화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서초 5학년 19명의 학생들은 ‘교실 속 세계여행’이라는 학급 특색을 살려, 다양한 나라와 지역의 교실과 화상으로 연결해 문화를 교류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

행하고 있다. 지난 1학기에는 충남 홍성, 경기도 광명, 인천광역시 등의 국내 교실과 화상으로 연결해 지역문화를 교류했으며, 2학기에는 다른 나라와 함께 각국의 문화를 영어와 사진자료로 교류하는 도전을 이어오고 있다.

5월 4교시에 진행된 대만과의 화상수업은 삼서초 5학년 학생들의 아리랑 공연과 대만 학생들의 전통 똥구 부르기로 시작했다. 이어 서로의 대표 문화와 학교생활을 사진자료로 보여주며 영어로 소개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몸짓언어를 활용해 질문하거나 답하기도 했다.

장성=박종영 기자

순천교육지원청, 학교교육환경 개선 지원활동 실시



순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지난 5일 황전초등학교 회덕분교장에서 ‘학교시설 긴급지원단’ 12명이 모여 학교시설관리직 미배치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였다.

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학교지원센터 구축과 함께 순천 관내 시설관리직원 및 외부전문가 등 12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지원단으로 위촉하여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및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현대화 장비가 설치된 학교시설업무 지원과 긴급 사항 발생 시 원스톱으로 지원하도록 ‘학교시설 긴급 지원단’을 조직·운영하고 있다.

평상시는 학교의 시설장비 운

용 요령 등 맞춤형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단원별 담당 학교를 지정하여 아이키움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번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환경개선을 실시한 회덕분교장은 1학기 초에 허석 순천시장과 교육장이 함께하는 경청을래에서 지역민 및 학부모에게 약속한 교육환경 개선을 이행한 것뿐만 아니라, 소망·전기 분야를 점검하고 수목전정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여건을 도모하게 되었다.

고흥=한윤섭 기자

전남 교육참여위, 정시확대 반대 입장 발표

전남도교육참여위원회와 전남도내 22개 시·군 교육참여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입시 전형 정시확대 논란과 관련, 반대 의견을 담은 공동입장문을 지난 5일 발표했다.

김성보 전남교육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23명의 위원장 공동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교육참여위원회는 “공교육 붕괴, 사교육 강화, 특권교육 확대로 이어질 정시확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시확대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의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시확대는 학교 현장을 또 다시 혼

란에 빠트릴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시확대는 사교육 접근이 어렵고 오로지 공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또 다시 도시 집중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문제인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고흥예술교육축제, 과역 프로젝트 수업’ 실시

고흥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과역면 참살이조기비촌 공원 일대에 학생과 교사, 지역민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고흥예술교육축제, 과역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했다.

이번 ‘과역 프로젝트’는 작년 ‘연흥도 프로젝트’에 이어 ‘제2회 지역연계 예술·감성 프로젝트 연함수업’이다. 아이들이 마을을 무대 삼고 지역민을 관객 삼아 예술교육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사랑과 예술 감성을 북돋아 주기 위해 기획됐다. 흥예술교사연구회(중등 음악·미술교사 16명)와 11개 중·고등학교 100여 명 학생들이 주도하여 추진됐다.

조기비촌 공원에서 ‘공공미술 벤치 제작 및 설치’, ‘버스킹 공연’, ‘뮤지비디오 제작’, ‘인도에 지역연계 예술·감성 프로젝트 연함수업’이다. 학생들이 직접 페인트칠하고 디자인하여 만든 벤치를 설치하였고 주민들과 이루어진 사물놀이,

핸드벨, 관악중주, 오카리나, 통기타, 우쿠렐레, 하모니카 연주, 합창 등 버스킹 공연을 했다.

또 공원 오솔길에 바다화를 그렸고, 과역 오일장 풍경과 지역민 인터뷰, 학생들의 예술교육활동을 영상에 담아 뮤지비디오를 제작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교원 원격연수 기관인 ‘에듀네트 행복한 연수원’에서 이 모든 과정을 촬영하기도 했다.

고흥=한윤섭 기자

